

# 전남도, 반도체학과 증원 정부 건의

### 학령인구 감소 위기 등 우려 표명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중단 촉구 광주시와 반도체산업 과제 추진

전남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 움직임은 지방대 위기를 재촉하는 것이므로, 인구감소·낙후지역 대학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교육부에 수도권 대학 위주로 반도체 학과를 증원하면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역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

원하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증원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에 힘이 실리면 지방대학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 인력 부족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가 고심하는 사항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으로 '반도체 자립', '반도체 안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국가적으로 반도체는 비중 있는 산업으로 급부상했다. 부족한 인력양성은 시급한 과제지만 수도권 대학의 증원만이 해답일 수 없고, 오히려 인구감소로 낙후한 지방대학에 반도체 학과 개설을 신설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한 전남도는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위주의 인력양성이 지방대학에서 추진되어야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

방의 인구 소멸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선순환적인 인력 공급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초광역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해 '반도체 산업'을 광주·전남 상생협력 과제로 채택하고 민선8기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시·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광주·전남 반도체 육성방안'과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수급 계획을 전남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과 증원계획은 지방대학 위기를 가속화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고, 지역 산업도 인력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검토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성진 기자

# 나주시, 'SRF 발전소 10년 가동 안' 수용

### "국무조정실 주체 협의 진행"

나주시가 지역의 최대 현안인 SRF열병합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정부의 중재안인 '10년 가동 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체로 지난 2월15일 열린 나주 SRF 관련 회의에서 나주시는 그동안 정부 측에서 제시했던 'SRF 10년 가동 안'을 수용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핵심 쟁점인 '광주에서 생산된 SRF의 나주 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다.

이와 관련 정찬균 나주시 부시장은 "지난 2월 15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관련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 여러 가지 안과 10년 후 SRF를 어떤 형태로 전환할지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체로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

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메인 발전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 전용의 보조발전시설인 점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5년 가까이 정상 가동을 못해 왔다.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지난해 4월 승소하면서 발전소는 정상가동에 들어갔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한 나주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 도, 원숭이두창 확산에 대응체계 강화

### 의사환자 신고·입원병상 확보

전남도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질환 원숭이두창이 확산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전남도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와 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 최근 국립목포병원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해 예비병상도 확보했다.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를 발견한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고, 관할 보건소는 지체 없이 임상증상과 여행력, 접촉력 등을 파악해 전남도 역학조사반에게 사례분류와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도에 의심 사례로 접수돼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원숭이두창 국가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국립목포병원으로 신속히 대상자를 이송한다. 검체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종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의료기관에 홍보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접촉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별 시나리오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숭이두창은 이미 해외에서 38개국 1,000여 명이 확진됐으며, 감염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지난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했다. /길용현 기자

# 전남식품, 미국 LPGA 대회서 호평

### 스포츠 마케팅 확대 현지 공략

전남도가 고품격 식품 브랜드로서 '전라남도'의 해외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적 인기 스포츠인 LPGA 골프대회에서 현지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펼쳤다.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에서 지난 12일까지 3일간 열린 '2022 샵 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 전남 미주사무소(소장 최광우)가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 등 현지 유관기관과 함께 케이-푸드를 대표하는 전남홍보관을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2022 샵 라이트 LPGA 클래식'은 미국 동부지역 7개 주에서 320여 슈퍼마켓 매장을 운영하는 리테일 협동조합 '샵 라이트(ShopRite)'사가 후원하는 대회다. 고진영, 박인비, 이정

은, 전인지 등 한국인 선수 20명을 포함한 144명의 전 세계 최상급 선수가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현지 식품유통업 관계자와 갤러리 등 7만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전남 홍보관은 코스트코(COSTCO)를 통해 판매 중인 유기농유자주스(고흥 에덴식품)와 오징어스낵(여수 ㈜아라온)은 물론, 현지 상설 판매장에서 판매 중인 한과, 김, 고추장 등을 선수와 갤러리에게 선보였다. '전라남도' 식품을 고품격 식품 브랜드로 미국 현지 시장에 홍보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현장에서 홍보관을 운영한 최광우 소장은 "샵 라이트사와 거래하는 식품 유통사들이 홍보관을 찾아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미주사무소가 현지 유통사와 전남 수출기업의 연결 고리로서 미국 현지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마을공동체 약정식 광주시 동구는 13일 대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88개 공동체 대표와 약정식을 갖고 마을사업의 이해, 예산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동구 제공

# 광주시, '지역균형뉴딜' 우수 지자체 선정

### AI·뉴딜 기반 구축 호평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균형 뉴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그동안 지역균형뉴딜 추진성과에 대해 ▲기반 구축 ▲성과창출(그린·디지털) ▲확산 및 국민체감 분야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광주형 인공지능(AI)-뉴딜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광주형 인공지능(AI)-뉴딜 종합계획 수립, 인공지능펀드 조성 및 투

자유지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국내·외 인공지능(AI) 선도 기업 유치 및 맞춤형 종합지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했으며, 지능형 센서를 이용한 도로 시설 관리 및 사고 예방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들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민간거버넌스 구성·운영, 시민햇빛발전소 등 다양한 시책들

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제1호 민자투자인 빛고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해 세계 최초 LPG-LNG '빛고를 에코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상용화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 맞춤형 홍보 및 기관장 활동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의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광주시는 2023년 군특회계 차등지원 평가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 받게 된다. /조기철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제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인·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NAVER 드림꽃도매 광역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림 박배성 302-0316-649511